

사람의 변화

작성일 : 2012. 6. 7(목) 아침 8시 30분

작성자 : 주은혜 (부산 주 향기로운 교회)

* 오늘 새벽 주님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연장선에서 아침에 주님께 '주님, 사람이 정말 안 변해요. 진짜 변하기는 하는 걸까요? 변화된 것 같아 보여도 근본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변화한 것 같기도 하니 참 어렵네요.'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주님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앎이요.

두 번째, 성령이요.

세 번째, 집중력이니,

이 세 가지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이 진실되게 알고,

또 그 앎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면 실천하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인지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야 할지도 알아야

온전하게 변화할 수 있다.

자신을 알기 전에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니,
답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알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다.
아는 것은 인간 책임분담이니,
알고자 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은 인간 창조의 힘이었다.
사랑과 성령으로 삼위는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성장시키셨다.
성령은 새로운 것을 세울 수도 있고,
기존의 것들을 허물 수도 있으니,
성령을 받아라.
너희를 새롭게 한다.

성령은 삼위의 힘ियो, 능력이다.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리니,
받는 자는 변한다.
단, 진실로 알고 행하며
마음으로 받는 자는 변하게 된다.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한계도 없다.
하지만 너희의 책임분담 없이는

귀히 쓰일 수 없으니
이를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주님, 집중력은요? 집중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의외인데요?)

사람은 한 번에 안 변한다.
그러므로 알고 성령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변할 때까지 잊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집중력이다.

죄는 너를 넘어뜨리고,
의는 너를 영광 중에 세우리니,
죄는 언제나 너를 넘어뜨리려 찾아온다.
이 죄를 이겨야 한다는 집중력이 없으면,
이길 수도 없고 항상 넘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 전쟁은 승리다.
알고 대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의지가 없다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대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집중력 있게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죄를 알고, 스스로를 알아서 계속 이기면
차원이 오른 고로 변화되고,
이전의 시험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너의 삶을 포기하지도, 변화를 쉬지도 말아라.
언제나 너희가 변화하고자 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하여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 행하게 하니, 잊지 말아라.

사람은 의지로 살고 죽는다.
생각으로 살리고 생각으로 죽이기도 하고
마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하고,
가능을 불가능하게도 한다.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너희다.
내가 너희 대신해 줄 수 없으니,
결단하고 변화를 결심하여라.

차원을 높이고, 성장하는 데에는 끊임이 없다.
처음에는 힘들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르다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너무나 재미있다는 것과,

차원을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영원한 기업으로 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기라는 작품이 너희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보화다.
너희가 그 속에서 나를 찾으며,
나의 자리를 내어 주며 행할 때
삼위가 손을 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랑한다.

사랑의 성자다.